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에 관한 연구동향

황 매 향 김 계 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은 진로영역 이론의 발달 초기부터 진로의사결정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진로상담 영역에서 이루어진 타협과정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진로상담 실제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의 진로상담 현실과 기존의 연구를 중심으로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타협과정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을 최초로 체계화한 Gottfredson의 이론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던 타협과정에 관한 여러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를 검토하면서, 현재의 연구동향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예측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진로상담 실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봄으로써 상담학이 추구하는 상담연구와 상담실체를 접목시키는 과학자-임상가 모델(scientist-practitioner model)을 구현해 보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진로의사결정과정에는 타협과정(compromise process)이 포함된다. 개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직업과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과정은 진로의사결정에서 더욱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Gati, 1993). 특히 직업세계의 변화가 더욱 심화되고 개인들의 진로 기대수준은 점점 향상되어 가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진로선택에서 있어서 타협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진로 영역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진로목표의 성취가능성 또는 진로목표의 비현실성 등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이상적인 진로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타협과정에 관한 진로발달 이론과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진로상담이 대상으로

하는 진로의사결정 행동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과 상담전문가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타협과정에 대한 이해가 진로의사결정을 이해함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진로발달적 관점에서 타협과정의 이론적 기반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타협과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을 밝힌 경험적 연구의 결과들을 검토하고; 둘째, 일관되지 못한 연구결과들에 대한 논의와 대안적 이론을 정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론을 진로상담 실체에 적용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볼 것이다.

타협과정의 중요성

대학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가'대학의 '나'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가능해서 아무런 갈등 없이 '가'대학의 '나'학과에 원서를 낼 수 있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오랫동안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왔지만, 직업에 입문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자신에게 가능한 직업은 자신이 희망했던 직업과 다른 경우도 많다. 자신에게 가능한 직업들 중에서는 도저히 마음에 드는 직업이 없어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사법고시를 보는 사람의 수는 항상 합격자의 수배를 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결국 다른 진로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자포자기하여 진로선택 자체를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다 적응적인 진로선택 행동은 주어진 현실과 타협하여 나름대로 만족한 진로를 선택하는 것

이다. 자신이 원하는 '가'대학보다는 사회적 명성이 떨어지는 '다'대학에 원서를 낼 수도 있고, 자신의 흥미나 적성과는 맞지 않지만 '라'학과에 진학하기도 한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법조인이 되고 싶었지만,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하는 소자본 경영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진로 사이의 격차에 타협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다. 예를 들면, Ginzberg, Ginsburg, Axelrad와 Herma (1951)는 타협과정을 진로선택의 최종단계로 보았고, 모든 진로선택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외적 현실 여건에 맞게 개인의 내적 욕구가 희생되는 과정에서 최적의 만족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타협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Super(1953, 1984) 역시 개인과 사회적 요인 사이, 자아개념과 현실 사이의 타협에 관해 언급하면서, 교과선택, 특별활동 선택, 직업선택 등 거의 모든 진로선택에 타협의 과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타협은 개인이 자신이 가진 진로 목표 가운데 자신에게 보다 중요한 요소들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덜 중요한 요소들을 포기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타협과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어떻게 타협해 나가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Gottfredson(1981)이 타협과정에 관한 논의들을 최초로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면서 타협과정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타협과정에 관한 많은 경험적 연구가 Gottfredson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한편 적지 않은 경험적 연구들은 Gottfredson의 이론을 반증하는 연구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가능한 진로 대안들이 갖는 여러 측면들

(예, 사회적 명성, 자신의 흥미영역) 가운데 어느 것은 포기하고 어느 것은 유지하는 것이 타협의 과정이라면, 각 측면들이 갖는 우선 순위가 타협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러한 타협과정의 핵심인 타협의 우선 순위를 밝히려고 하였다. 그러나 타협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예, Hesketh & Durant, 1990; Hesketh, Elmslie, & Kaldor, 1990; Holt, 1989; Leung, 1993; Leung & Barbara, 1990; Taylor & Pryor, 1985). 즉, Gottfredson이 제시한 타협의 원리들이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Leung & Plake, 1990). 따라서 일관되지 못한 연구결과들을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그 이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들이 타협의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선행연구 고찰

타협과정의 원리

타협은 자아개념과 현실 사이에서 일어난다. 개인이 자신의 진로발달, 선택, 수행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관계되는 진로자아개념은 바로 타협의 내적 기반이며, 그 발달은 생애초기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 전체를 통해 발달한다(Vandiver & Bowman, 1996). 타협과정 이론을 최초로 정립한 Gottfredson(1981)에 따르면 진로기대(진로자아개념)의 발달은 여러 가능한 직업에 대한 탐색, 제외, 선택의 과정과 관련된다. 진로기대 발달의 첫 단계는 3-5세의 시기이며 서열 획득 단계(*orientation to size and power*)로 명명된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어른이 된다는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 다음 단계는 6-8세의 시기로 성역할 획득 단계(*orientation to sex role*)로 명

명되고, 이 시기를 통해 성역할 개념이 확고해진다. 세 번째 단계인 9-13세 시기는 사회적 가치 획득 단계(*orientation to social valuation*)로 사회적 계층과 능력과 같은 보다 추상적인 자아개념이 사회적 행동과 기대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14세 경이 되면 마지막 단계인 내적 자아 확립 단계(*orientation of the internal, unique self*)에 이르고 자아정체감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가 된다.

위와 같은 발달단계를 통해 보다 분명한 자아와 일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준과 함께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분화된다. 성역할 획득 단계를 거치면서 직업은 성역할로서 적합한 직업과 적합하지 않은 직업으로 인식되고, 자신의 성에 적합하지 않은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직업 목록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예를 들면 남아들은 간호사라는 직업은 여성에게 알맞은 직업이라고 인식하고 자신이 앞으로 갖고 싶은 직업 목록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은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 획득 단계를 거치면서 아동이 사회적 계층에 관한 자아개념을 갖게 되면, 낮은 사회적 지위의 직업들을 제외시키기 시작한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들은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 볼 때 극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얻기 힘든 직업들도 역시 제외시키기 시작한다.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등을 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선택범위를 축소시키게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가 되면 학생들은 실제 상황에서 어떤 직업을 갖거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진로선택을 해야한다. 따라서 이 시기가 되면 어떤 진로 대안들이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더욱 민감해진다. 지금까지의 발달과정을 통해 진로선택의 폭을 축소해 왔지만 여전히 자신이 꿈꾸어 온 진로를 실현하는 데에는 여러 장벽이 있을 수 있다. 즉,

자신의 진로기대수준을 포기하는 타협의 과정이 구체적인 진로선택을 위해 요구된다.

Gottfredson(1981)은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 이론을 정립하면서 타협과정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였고, 타협과정에 관심을 가진 많은 후속연구자들은 그 원리를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에 주력하였다. Gottfredson이 제시한 세 가지 타협과정에 관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개념의 어떤 측면은 다른 측면에 비해서 보다 중요하고 따라서 진로목표를 타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측면은 우선권을 갖는다; 둘째, 진로탐색의 과정은 반드시 최상의 대안 선택에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만족할만한 선택에서 종료된다; 셋째, 진로선택 이후에는 진로선택을 위해 자신이 취한 타협에 심리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원리인 타협과정에서의 우선 순위에 대해 Gottfredson(1981)은 성역할이 가장 중요한 자아개념의 측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측면은 개인의 사회적 위치(직업의 사회적 지위)이며, 개인의 성격과 흥미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쉽게 타협하는 측면이다. 따라서 자신이 기대하는 사회적 지위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흥미 영역에 있는 직업을 포기하게 되고, 자신의 성역할에 맞지 않는 직업은 자신의 흥미 영역에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한다는 것이다. Gottfredson은 이 타협의 제1원리를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 바탕을 두고 제안하고 있다. Scott, Fenske와 Maxey(1974)의 연구는 성역할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초급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연구에서 60%의 남학생들이 실용적(홀랜드의 흥미코드 R) 직업을 원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21%만이 실용적인 일을 원하였다. 사회적(홀랜드 흥미코드 S) 직업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23%, 여학생의 63%가 선호도를 보여 주었다. 또한 이러한 선호도는 18개월 이후의 추후연구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Harmon(1971)의 연구와 Astin과 Panos(1969)의 연구 역시 여대생들은 전형적인 여성 직업에 선호도를 보이고 남학생들은 보다 남성적인 직업에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Holland(1962)의 National Merit Finalists 연구도 직업의 성역할, 직업의 사회적 지위(수준),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자신의 흥미 영역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Gottfredson(1981)은 다음과 같이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성격 유형(흥미 영역)과 진로기대 사이의 관계는 다른 요인의 영향으로 그 일관성이 낮아질 수 있다. 예를들면, 남자에게 심미적 직업(A 코드 직업)과 같이 성공가능성이 적은 직업, 관습적 직업(C 코드 직업)과 같이 남성 여성 모두에게 낮은 지위를 의미하는 직업, 또는 여성에게 실용적인 직업(R 코드 직업)과 같이 성역할이 맞지 않는 직업은 자신의 흥미 영역과 맞는 직업이어도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는다. 반면, 남성에게 탐구적 직업(I 코드 직업)이나 여성에게 사회적 직업(S 코드 직업)처럼 사회적 지위도 높고 성역할도 일치하는 직업은 자신의 흥미 영역과 맞지 않는 직업이어도 선호하게 된다”(pp.572-574).

Cooley와 Lohnes(1968)의 연구결과 또한 흥미가 직업의 지위보다 쉽게 희생될 수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 직업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기술과학,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사회문화, 대학수준의 학력이 요구되지 않는 기술과학, 대학수준의 학력이 요구되지 않는

사회문화의 네 가지로 분류할 때 모든 연구대상들은 동일한 흥미 영역 내에서의 상하 움직임보다 동일한 사회적 지위의 직업군 내에서의 횡적인 이동을 하고 있었다. 직업이나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사회적 지위보다는 흥미영역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의 유지를 위해 흥미영역을 포기하는 우선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두번째 원리인 만족스러운 선택을 위한 진로 탐색에서 Gottfredson(1981)은 진로선택의 우연적 또는 기회적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일부의 연구자들은 특정한 직업의 획득은 계획보다는 기회의 함수이고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추구함에 있어 보다 수동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진로선택에서의 운이라는 요인의 작용이 지나치게 강조된 입장이라고 Gottfredson은 지적하였다. 사람들은 자신이 꿈꾸던 최상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동적으로 운에 의해 결정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수준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번째 원리인 타협에 대한 심리적 적용에서 Gottfredson(1981)은 진로의사결정 이후 적용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타협에 대한 심리적인 적용은 선택한 진로에서의 만족도와 깊이 관련된다고 한다. Gottfredson과 Becker(1981)는 보다 적응적인 직업인들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의 영역에 맞게 자신의 진로기대를 변화시켜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Gottfredson(1980)의 연구에서 연구대상(남자)의 84%가 젊었을 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탐구적인 일을 선호했고, 기업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사람이 적었지만 현재는 자신의 원하는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기존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흥미영역과 동일한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의 직업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직업만족도와 매우 근소한 차이 밖에 보이지 않았다(예, Worthington & Dolliver, 1977; Zytowski, 1974). Gottfredson(1981)은 흥미라는 것이 진로의사결정에 크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Gottfredson(1996)은 타협에 대한 적응의 준비도는 타협의 측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개인은 일의 영역에 대해서는 많은 타협을 했다해도 심리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위치를 위협하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타협이나 성적 정체감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성역할의 포기에 대해서는 더욱 적용하기 어려워한다"(pp. 201-202).

타협과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

Gottfredson(1981)의 이론이 소개된 이후 이 이론에서 도출된 여러 원리들을 검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들이 활성화되었다. 많은 연구들은 타협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우선 순위에 초점을 두었고, 본고에서도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의 중요한 발견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Gottfredson(1981)의 타협의 원리를 지지하는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Taylor와 Pryor(1985)는 타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위, 성역할, 흥미의 세가지 측면의 상대적 역할을 연구하였다. 고교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특성자료와 대학진학에 관한 대학 및 학과선택에 대한 계획을 조사하였다. 학생들의 제일 선택과 타협 계획을 학과 및 직업 내용, 홀랜드 흥미코드, 지위 수준, 성역할에 따라

분류하였다. 35%의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영역과 동일한 학과를 선택하였고, 전반적으로 탐구적 학과(I 코드)를 선호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홀랜드 코드 가운데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탐구적(I) 코드에 대한 일반적 선호 경향은 사회적 지위가 흥미와 학과선택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Taylor와 Pryor는 자신의 흥미코드와 일관되지 않은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의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 연구를 통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위해 흥미영역을 포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Gottfredson(1981)이 제안한 우선 순위와 일관된 결과이다.

Holt(1989)는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과 공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에서의 타협 과정을 연구하였다. Holt는 흥미, 사회적 지위, 성역할의 세 가지 변인을 모두 포함하지는 않았고 지위와 흥미 변인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대상에 포함된 공학 전공 대학생들은 홀랜드 실용적(R) 유형을 대표하고 있고,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은 홀랜드 사회적(S) 유형을 대표하고 있다. 연구대상들은 동일한 흥미영역의 낮은 지위 직업과 동일한 지위의 다른 흥미영역 직업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다(연구 1). 또한 높은 지위의 사회적 직업, 낮은 지위의 사회적 직업, 높은 지위의 실용적 직업, 낮은 지위의 실용적 직업 등으로 구성된 20가지 서로 다른 직업에 대해 자신의 선호도 순위도 정하였다(연구 2). Holt는 Gottfredson의 이론을 근거로 동일한 흥미영역의 직업보다는 동일한 사회적 지위의 직업이 선택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대상들을 두가지 응답(연구 1, 연구 2)에서 모두 높은 사회적 지위의 직업을 선택하였다. 높은 지위의 직업이 자신의 흥미 영역과 일치되는 직업보다 선호되

었다. 즉, Holt의 연구도 흥미가 사회적 지위보다 쉽게 포기된다는 Gottfredson이 제안한 타협 과정의 우선 순위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Gottfredson(1981)의 타협 모델과는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경험적 연구들도 적지 않다. Hesketh와 Durant(1990)의 연구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Gottfredson의 모델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되었다: 1) 타협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성역할이 사회적 지위보다 더 많은 변량을 설명할 것이고, 사회적 지위는 흥미보다 더 많은 변량을 설명할 것이다; 2) 타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성역할이 사회적 지위보다 더 많은 변량을 설명할 것이고, 사회적 지위는 흥미보다 더 많은 변량을 설명할 것이다; 3) 세가지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은 타협이 필요한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연구대상은 신문광고를 통해 모집된 15-42세의 남녀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27가지 가상의 직업(3가지 수준의 성역할, 3가지 수준의 사회적 지위, 3가지 수준의 흥미영역으로 조합된)으로 구성된 직업선택 컴퓨터 프로그램에 응답하였다. 타협이 필요없는 상황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직업으로 정의되었고, 타협이 필요한 상황은 얻기 힘든 직업으로 정의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타협이 필요한 상황과 필요없는 상황 모두에서 Gottfredson의 이론이 지지받지 못하였다. 연구결과 성역할은 사회적 지위보다 중요하지 않았고, 사회적 지위는 흥미 영역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또한 흥미 영역의 중요성은 타협이 필요한 상황에서 더 증가하였으며 성역할의 중요성은 타협의 상황에서 더 감소하였다. 즉, Hesketh와 Durant의 연구결과는 Gottfredson의 이론에 근거한 연구가설들을 모두 기각하였다.

Hesketh, Elmslie와 Kaldor(1990)의 연구에서도

흥미가 어떤 측면보다도 타협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사회적 지위도 성역할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져 Hesketh와 Durant(1990)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우선 순위를 제안하고 있다. Hesketh, Elmslie와 Kaldor의 연구는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집단의 서로 다른 두 집단에 대해 실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연구자들이 개발한 진로의사결정 컴퓨터 프로그램(Fuzzy Rating and Fuzzy Paired Comparison), 성역할·사회적 지위·흥미영역에 대한 중요성 자각 질문지, 스트롱 흥미검사(Strong Campbell Interest Inventory) 등이다.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은 진로의사결정 컴퓨터 프로그램에서의 응답과 성역할·사회적 지위·흥미영역에 대한 중요성 자각에 대한 자기보고에서 모두 흥미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성역할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집단에서도 동일한 연구결과를 얻어, 타협과정에서의 중요도는 '성역할 > 사회적 지위 > 흥미영역'이 아니라 '흥미영역 > 사회적 지위 > 성역할'의 순위임을 제안하고 있다.

Leung과 Plake(1990)의 연구는 타협과정의 우선 순위에 대한 또다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Leung과 Plake는 성역할과 사회적 지위의 상대적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타협과정에서의 흥미영역의 측면은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이 개발한 직업선택 딜레마 검사(Occupational Choice Dilemma Inventory, OCDI)와 일반특성 조사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직업선택 딜레마 검사는 여러 직업들을 사회적 지위 지수(SEI)와 성역할 지수(MDI)로 코딩하여 응답자들이 선택한 직업을 사회적 지위와 성역할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든 질문지이다.

높은 사회적 지위 지수의 직업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의미하고, 높은 성역할 지수의 직업은 보다 남성적인 직업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남학생들이 선택한 직업은 남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직업에 비해 사회적 지위 지수가 높고 성역할 지수가 낮았다. 남성적인 직업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학생들이 선택한 직업은 여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직업에 비해 사회적 지위 지수와 성역할 지수가 모두 높았다. 여학생들 역시 여성적인 직업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남녀 대학생 모두 사회적 지위를 보다 선호하는 요인으로 지각하고 있음이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성역할이 타협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Gottfredson의 원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타협과정에 대한 새로운 설명

지금까지 타협과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검토하면서 Gottfredson(1981)이 제안한 타협과정에서의 우선순위(성역할 > 사회적 지위 > 흥미영역)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지지받고 있는 반면, Gottfredson의 이론과는 상반되는 연구결과를 보여주는 경험적 연구들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반된 연구결과들은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 과정을 보다 다면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첫번째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타협과정에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일 것이다. 예를 들어 Taylor와 Pryor(1985)는 그들의 연구결과가 Gottfredson의 타협의 원리를 지지한다고 보고하면서, 타협과정에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제안하고 있다.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보다 사회

적 지위에 민감하고, 여자들은 남성들에 비해 성역할에 덜 민감하다고 밝히고, 흥미영역, 사회적 지위, 성역할의 상대적 영향력이 남성과 여성에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지위가 낮더라도 보다 자신의 흥미와 일치하는 학과를 선택하고 남성과 여성이 모두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남학생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의 학과를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흥미영역이 아닌 학과를 선택하고, 보다 남성에게 적절한 직업을 선호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Leung(1988)의 연구에서도 타협과정에서의 남녀 차이가 나타났다. Leung은 남자들이 여들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이는 Taylor와 Pryor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타협과정에 관한 Holt(1989)의 연구는 흥미영역이 타협과정을 매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과 공학 전공 대학생의 직업 선호도를 연구한 Holt는 타협과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흥미영역에 맞는 직업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져 Gottfredson(1981)의 타협의 원리를 지지하고 있다. 보다 세밀한 분석에 의하면 공학 전공 대학생들이 사회복지학과 전공 학생들에 비해 사회적 지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사회복지학과 전공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 영역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개인의 흥미 영역에 따라 타협과정에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는 측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Leung(1993)은 또한 문화적 차이가 타협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eung은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타협과정

에서의 성역할과 사회적 지위의 상대적 중요성을 연구하였다. 아시아계 미국인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연구진들이 개발한 직업선택 딜레마 검사(Occupational Choice Dilemma Inventory, OCDI)에 응답하게 하였다. 직업선택 딜레마 검사의 각 문항에서 학생들은 성역할과 사회적 지위의 수준이 서로 다르게 체계적으로 조합된 두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통해 타협과정에서의 성역할과 사회적 지위의 상대적 중요도가 측정된다. 이 연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대학생들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성역할에 타협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Leung은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 연구와 최근의 다른 연구의 결과들(Leong, 1991; Leung, Ivey, & Suzuki, 1994)은 사회적 지위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은 진로의사결정에서 자신의 흥미나 적성과 같은 다른 요인들을 무시하면서 사회적 지위를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p.192).

Gottfredson(1996)은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이 자신의 타협의 원리를 충분히 지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타협과정에 관한 새로운 원리인 조건적 타협 우선 순위의 원리를 제안하였다. 조건적 타협 우선 순위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성역할, 사회적 지위, 흥미영역이 갖는 진로의사결정 타협과정에서의 상대적 중요성은 요구되는 타협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 1) 개인이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직업의 성역할, 사회적 지위, 흥미영역과 차이가 적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때, 흥미영역에 가장 큰 우선 순위를 두고 진로

를 선택하게 되고 흥미영역에 일치된 진로가 사회적 지위와 성역할도 충족시켜주게 된다

- 2) 직업의 성역할, 사회적 지위, 흥미영역에 있어 중간 정도의 포기를 해야할 때, 누구나 사회적 지위에 타협하는 것을 꺼린다. 반면 성역할이 아주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면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 3) 많은 타협을 요구하는 진로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나 성역할의 범위를 축소하기 보다는 자신의 흥미영역에 있는 진로부터 포기한다. 또한 다음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완전히 반대의 성역할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게 된다.
- 4) 흥미영역은 항상 중간 정도로 고려된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나 성역할이 어느 정도 수용될 수준이 되지 않으면 흥미영역은 포기되고 사회적 지위나 성역할에 적합한 직업이 선택되게 되는 것이다”(pp.198-200).

Gottfredson의 위와 같은 가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즉, 다시 한번 Gottfredson이 타협과정에 관한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andiver와 Bowman(1996)도 타협과정에 대해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타협의 우선순위가 각 개인의 고유한 인지적 스키마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흥미에 대한 인지적 스키마가 확고한 개인의 경우 흥미 영역에 타협하기 보다는 흥미 영역에 맞는 진로 선택을 위해 사회적 지위나 성역할에 타협하게 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보다 많은 돈과 지위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흥미영역을 포기하기로 결심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일이나 진로보다는 경제적인 보상에 보다 인지적으로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 가지 영역에 모두 인지적 스키마가 확고하여 흥미 영역, 성역할, 사회적 지위 어디에도 타협하기 힘들어할 수도 있다. 이들은 타협하기보다는 오로지 한가지 진로만을 추구하고 다른 진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세 가지 영역 어디에도 인지적인 스키마를 형성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흥미영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성역할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아닌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 종류의 진로를 전전하며 방황하게 된다”(p.163). Vandiver와 Bowman은 각 개인이 발달과정을 통해 형성시킨 진로자아개념의 보편성보다는 고유성을 강조하고 있다. Gottfredson(1981)이 제안한 일반적인 타협의 우선 순위보다는 각 개인마다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는 개인차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타협과정에 관한 연구가 진로상담에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검토한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에 관한 기존 연구의 성과들은 진로상담 실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에 관한 연구가 진로상담에 주는 첫번째 시사점은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다. 타협과정은 진로의사결정에서 거의 빠짐없이 포함되는 과정으로,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로발달의 연구 영역에서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문제의 정의→정보의 수집(개인적 특성,

직업세계)→진로대안의 설정→결과예측→진로대안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진로 의사결정 모형의 마지막 단계인 진로대안의 선택에서 타협의 과정은 필수적이다. 타협의 과정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연구를 통해 진로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온 반면, 국내에서는 타협의 과정에 관한 진로영역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가 진로 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타협 과정에 관한 국내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는 촉진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실제 진로상담의 일선에 있는 상담자들로 하여금 내담자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다. Super는 이미 1953년에 다음과 같이 상담자가 타협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상담전문가들의 역할은 개인이 타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므로,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타협을 해야 하는 요인과 그 과정에 대해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타협과정의 역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상담자는 건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내담자의 타협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p.187). 타협 과정에 대한 이해는 상담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기반의 필수적인 부분인 것이다.

사람들은 생애를 통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고교 졸업생의 대학 및 학과 선택이나 직업 선택, 대학에서의 전공 변경, 직장에서의 진로 변경, 새로운 직업에의 입문, 교육체제로의 재입문, 직업의 변경 등 모든 시기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진로관련 의사결정에서 개인이 원하는 직업이나 대학,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럴 때마다 타협이라는 과정이 없이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상담자가 진로 의사결정을 원하는 내담자를 만날 때, 내담자의 의사결정에 포함된 타협의 과정을 간과한다면 내담자의 현실적 문제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담자들이 내담자들의 진로 의사결정 자체를 조력하기 위해 타협 과정에 대해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타협 과정에 대한 이해는 진로 영역의 다른 문제에 대한 이해도 촉진할 수 있다. 먼저 진로 미결정자들 가운데 타협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Gati, 1993; Gottfredson, 1981). 자신의 이상적인 진로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진로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큰 경우 어떤 방향으로도 타협하지 못하고 미결정 상태에 놓여 있는 내담자를 조력하기 위해서는 타협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Gottfredson(1981, 1996)이 강조하고 있듯이 타협에 대한 심리적인 적응이 이미 선택한 진로에서의 만족감과 관련된다는 점도 진로상담 실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특히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입시 재시도나 전공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 중에는 자신이 대학 진학시에 선택했던 타협에 심리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일 수도 있다. 직장에 입사한 이후에도 자신의 선택에 대해 계속 의문을 갖고 다른 대안들을 탐색하면서 불안해하는 경우도 역시 자신의 타협 과정에 적용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진로 변경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내담자들을 만날 때에도 상담자가 그 이전의 진로 의사결정에서 있었던 타협 과정을 이해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또다른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진로 의사결정의 타협 과정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Gottfredson(1981)이 제안한 타협 과정의 원리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타협의 과정은 Gottfredson

이 제안한 것처럼 단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특성과 상호작용하는 보다 복잡한 과정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진로의사결정의 타협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에 대한 연구를 촉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타협과정에서의 남녀 차이, 흥미 영역의 매개역할, 문화적 배경의 영향력, 타협의 심각도에 따른 타협 우선순위의 변화, 인지적 스키마의 개인차 등이 제시되었으나, 아직은 이들 중 어느 변인도 경험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앞으로 타협과정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동시에 진로상담 실제에 있어서는 상담자들이 타협과정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 숙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고유성이 그 과정과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진로의사결정의 타협과정을 연구한다면 외국과는 다른 몇가지 특성들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학의 전공을 선택할 때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전공학과(또는 학부)보다 대학 자체의 사회적 명성이나 순위(rank)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연구결과가 있다(하혜숙, 2000). 즉,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전공이나 학과의 명성, 그 학과를 전공한 후 진출하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 등에 못지 않게 자기가 다닐 대학 자체의 명성과 지위, 소재지(수도권 여부) 등이 진로의사결정 타협과정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봉환·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 311-334
- 장대운·박진현·나동진·이영식 (1986). 전공적성 불일치 대학생의 전공학과 적응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4, 1109-1154. 전주: 전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하혜숙 (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과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stin, A. W. & Panos, R. J. (1969). *The educational and vocational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 Cooley, W. W. & Lohnes, P. R. (1968). *Predicting development of young adults. Project TALENT five-year follow-up studies* (Interim report 5). Palo Alto: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Project TALENT.
- Gati, I. (1993). Career compromi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16-424.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L. S. (1980). Change and development in careers. Final report for grant NIE-76-0075. Baltimore: Center for Social Organization of Schools, The John Hopkins University (Eric Document No. ED 182 465).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 Gottfredson, L. S. (1996).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179-232). San Francisco: Jossey-

- Bass.
- Gottfredson, L. S. & Becker, H. J. (1981). A challenge to vocational psychology: How important are aspirations in determining male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121-137.
- Harmon, L. W. (1971). The childhood and adolescent career plan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 45-56.
- Hesketh, B. & Durant, C. (1990). Career compromise: A test of Gottfredson's (1981) theory using a policy-capturing procedur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6, 97-108.
- Hesketh, B., Elmslie, S., & Kaldor, W. (1990). Career compromise: An alternative account to Gottfredson's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1), 49-56.
- Holland, J. L. (1962). Some explorations of a theory of vocational choice: One-and two-year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Monographs*, 76(26, Whole No.545).
- Holt, P. A. (1989). Differential effect of status and interest in the process of compromi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1), 42-47.
- Leong, F. T. L. (1991). Career development attributes and occupational values of Asian American and White American colleg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 221-230.
- Leung, S. A. (1988). An examination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in career decision-making amo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IL.
- Leung, S. A. (1993). Circumscription and comprise: A replication study with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2), 188-193.
- Leung, S. A., Ivey, D., & Suzuki, L. (1994). Factors affecting the career aspiration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x type and prestige preferences in the process of career choice compromis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 404-410.
- Leung, S. A & Plake, B. S. (1990). A choice dilemma approach for examin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x type and prestige preferences in the process of career choice compromi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4), 399-406.
- Scott, C. S., Fenske, R. H., & Maxey, E. J. (1974). Change in vocational choice as a functional of initial career choice, interests, abilities, and sex.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 285-292.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Super, D. E. (1984). Career and life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 192-234). San Francisco: Jossey-Bass.
- Taylor, N. B. & Pryor, R. G. L. (1985). Exploring the process of compromise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 171-190.
- Vandiver, B. J. & Bowman, S. L. (1996). A schematic reconceptualization and application of Gottfredson's model. In M. L. Savickas & W. B. Walsh (Eds.), *Handbook of career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pp.155-168). Palo Alto: Davies-Black.
- Worthington, E. L. & Dolliver, R. H. (1977). Validity studies of the Strong Vocational Interest Inventor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208-216.

Zytowski, D. G. (1974). Predictive validity of the Kuder Preference Record, Form B, over a 25-year span.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Guidance*, 7, 122-129.

The Compromise Process In Career Decision Making

Mae-Hyang Hwang Kay-Hy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promise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component in the career decision making process for a long time. This article reviewed the major literatures that are related to the compromise process in career counseling. This article consists of the following parts: the salience of compromise process in career decision making;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the compromise process; Gottfredson's principles of compromise; empirical findings on the process of compromise in previous researches; possible explanations on the mixed findings;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the researches and practices in the area of career counseling.